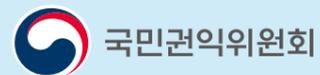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상담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www.clean.go.kr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국민권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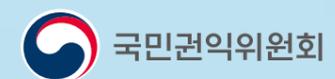
ACRC NEWSLETTER 2020. Vol.65

SUMMER

부패의 고리에



마침표를 찍다



부패의 고리에 마침표를 찍다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의 고리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CONTENTS

04 권익 포커스 ①

정부 출범 3년, 국민권익위가 선정한
10가지 결정적 장면

15 권익 인포

반부패 온라인 지원 시스템
청렴포털

28 권익 지금

고충상담기획과

38 청렴콘텐츠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분야

46 권익 트렌드&이슈

집에서 즐기는 홈 트레이닝

08 권익 포커스 ②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23 권익 뉴스

분기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청렴포털

32 권익 바이블

행정심판 제도, 집중탐구

42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48 권익 의식주

여름철 건강한 옷차림

12 권익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26 권익 샐롱

고충민원 권익충만

34 청백리포터

출산·육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다!

44 나도 편집장

슬기로운 여름 생활

50 #권익

독자의 소리 / 권익위 열독왕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공정 개혁, 국민권익 보호’라는 목표 아래 정부 출범 3년을 맞았다. 그동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한 반부패·공정 개혁의 핵심 장면 10가지를 되짚어 본다.

정부 출범 3년,

국민권익위가 선정한

10가지 결정적 장면

#1.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2017. 9. 26.)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반부패 개혁의 첫걸음
강력한 반부패 개혁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10년 만에 복원하였다. 이로써 개별기관 단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기반을 확립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안건 주요 성과〉

- 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3법 시행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19.7. 시행)
- ②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 개정 (사립학교법 '20.7, 유아교육법 '20.3, 학교급식법, '21.1. 시행)
- ③ 취업제한기관 확대,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등 (공직자윤리법, '20.6. 시행)
- ④ 사무장 병원 적발시 처벌 강화 (의료법, '20.2. 시행)
- ⑤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국세징수법, '20.1. 시행)
- ⑥ 입시비리 적발시 의무적 입학취소 등 제재 마련 (고등교육법, '20.6. 시행)

#2.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출범 (2018. 12. 10.)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국민의 눈높이까지
권력형 비리 등 전통적 부패의 척결을 넘어, 일상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까지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생활적폐대책협의회’가 출범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금지 규정 신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제도 도입 등 법·제도의 개선 성과가 행태·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2019. 2. 20.)

+ 공공기관 채용비리, 끝까지 잡는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7~2018년의 실태점검 결과 총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여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3,294명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특별채용 규정 일괄정비,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의무화 등 개선대책도 마련해 시행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2019년도 채용실태 전수점검 결과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4. 16.)

+ 소중한 나랏돈 꼭 필요한 곳에, 더 이상 눈먼 나랏돈은 없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환수 이외에도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 부정청구자의 명단도 공표된다. 4월에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및 이행점검 전담부서도 신설해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5.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2020. 1. 23.)

+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평가 결과 상승, 세계 3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R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도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정부와 민간부문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6.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대상법을 대폭 확대 (2020. 5. 19.)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284개→467개)로 신고자 보호 강화

그간 공익신고 대상은 284개 법률 위반행위에 한정되었으나, 11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원법, 병역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 개 중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도 한층 넓어져, 국민들의 용기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대상) 6대분야, 467개 법률 위반행위



#7. 군산시 비안도 도선운항 등 집단민원 현장조정 (2018. 12. 18.)

+ 장기 미해결·집단 민원 해결로 사회적 갈등 예방

국민권익위는 민-관, 민-민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쉽사리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無主)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정 ▲17년 만에 낙도 도선운항 길 마련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182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함으로써 85,900여 명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전통시장, 임대주택, 산업단지 등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불편, 기업경영 애로 등을 해결하는 국민중심의 현장소통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8.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2018. 11. 1.)

+ 전문가의 법적 조력으로 행정심판의 문턱을 낮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80여 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였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없이 한층 편리하게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과 행정청이 모두 만족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확대하는 등 더 따뜻하고 촘촘한 권익구제에 주력하고 있다.

#9.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 개통 (2019. 1. 30.)

+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이 되다

국민신문고 등 국민소통 창구에는 연간 1,00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2019년 초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를 개통해 국민 누구나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민원분석 결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10만여 건의 관련 민원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K방역 등 정부대책 수립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어학시험 성적의 제출기한 연장, 해외유학 자녀·국제항해 중인 선원 등에 대한 마스크 반출 허용, 자가 격리자 격리통지서 발급기준 개선 등 각종 생활 불편이 빠르게 개선되었다.



#10.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2019. 10. 1.)

+ ‘한 곳에서 한 번에’, 칸막이 없는 민원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2019년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출범해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각 부처에서 모인 전문인력들의 합동상담, 시·공간의 제약 없는 24시간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고용불안, 가족돌봄휴가 사용, 마스크 수입절차 관련 문의 등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상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향후 업무 추진계획

+ 반부패 개혁 가속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국민의 눈높이까지 강화
- 입시·채용 과정의 불공정이나 비정규직 차별 등 2030세대가 공감하는 ‘청년체감’ 공정과제와 생활 속 불공정 요소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
- 3년 동안 491개 공공기관의 불공정 사규 등 내부규정을 전수점검하여 개선

+ 코로나19 관련 긴급민원 신속 해결

- 서민, 취약계층 등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료 감면·조정, 의료비 지원 등과 관련된 긴급민원 해결
- 민원현장의 의견 청취,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광지 내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현실적 개선방안 마련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에 시행되어 4년째를 맞았다. 청탁금지법 이해를 돕는 부정청탁의 정의와 범위, 신고처리 절차, 유권해석·판례 등에 대해 소개한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통합검색(1398.acrc.go.kr)'에서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규정과 관련 질의해신 등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방문해 편리하게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청탁금지법

① '부정청탁'이란 이런 것!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한다.(법 제5조제1항)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실제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재선상 또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부정청탁 관련 법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위반행위		제재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1천만 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과태료(2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	과태료(3천만 원 이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인·허가, 채용·승진 등 인사, 계약, 보조금, 입학·성적 등 학사업무, 병역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이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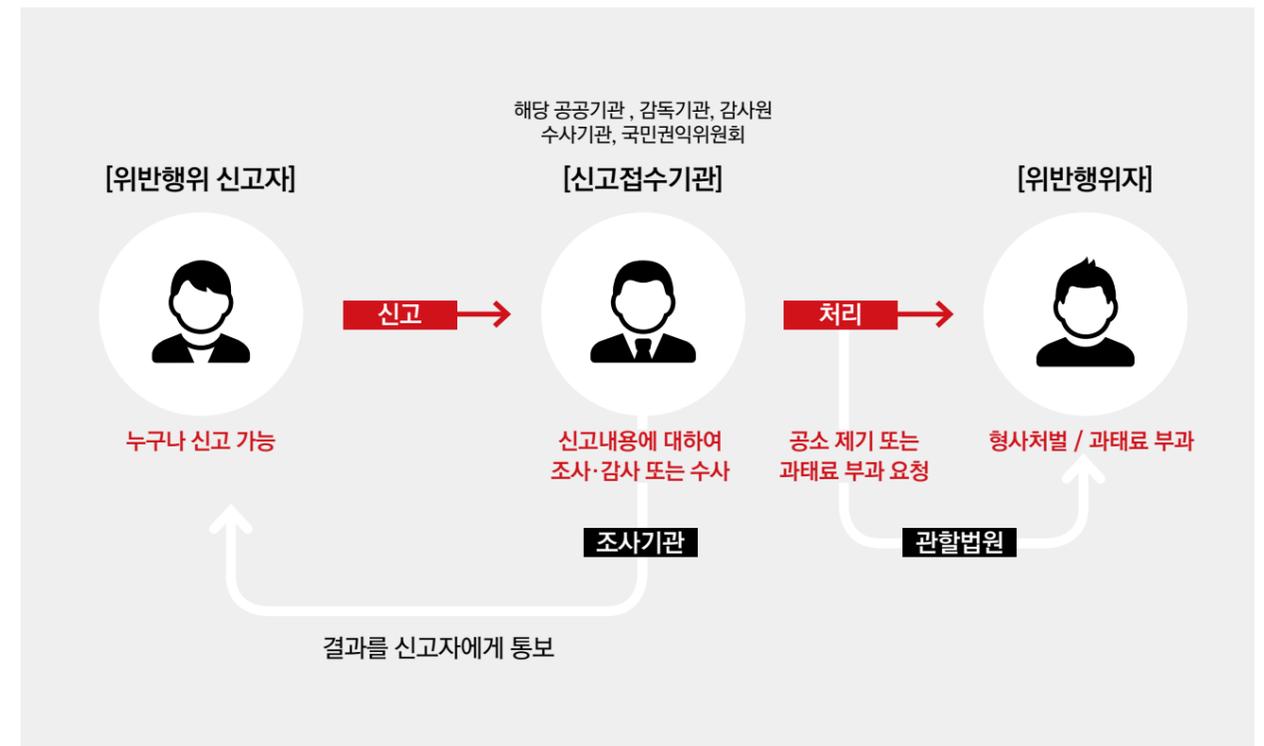
<부정청탁 대상직무 및 관련 사례> (총 14가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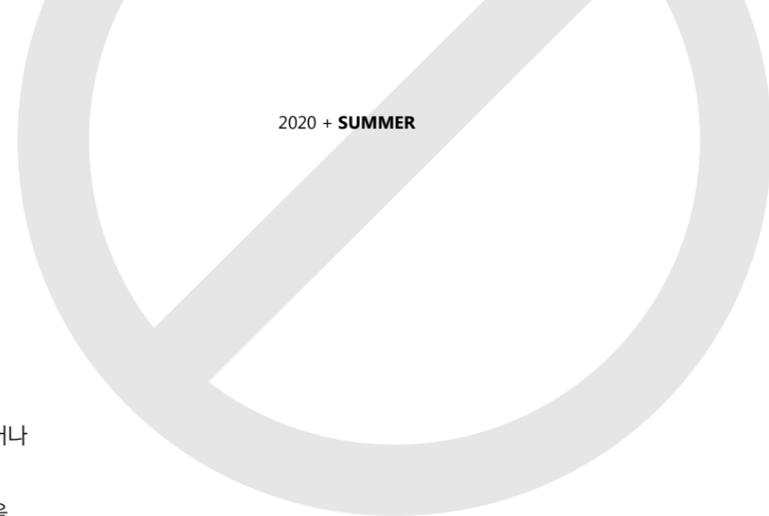
대상직무(법 제5조제1항)	관련 사례(예시)
(1호)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 요청
(3호)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직원들에게 자녀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우호적인 평가 부탁
(8호)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특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정 요청
(10호)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 부탁 및 사실과 다른 내용 작성 요구

누구든지 공직자등의 인사와 관련해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3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바로 알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②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법령 위반해 개입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들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공직자들의 채용·승진·전보 관련 법원 결정〉

+ 2020.01. 법원 결정

B가 A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A가 B를 위해 공직자 재직 시절 부하직원이었던 공직자에게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청탁

제3자를 위해 청탁한 A → 과태료 1천만 원
제3자를 통해 청탁한 B → 과태료 500만 원

+ 2018.09. 법원 판결

공직자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을 특정 자리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탁

인사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해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해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공직자 → 과태료 300만 원

+ 2019.02. 법원 판결

공직자가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송부

공직자 → 과태료 300만 원

〈공직자들의 채용·승진·전보 관련 질의회신 사례〉

+ 2018.09. 법원 판결

Q. '대학생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해 성실히 근무 완료한 학생에 대해 기관 혹은 부서 차원의 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공공기관이 인턴 등에 대해 부서 또는 기관 명의로 추천서를 작성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추천서 제출 자체를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법령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학교 입학·성적 등 관련 법원 결정〉

+ 2017.12 법원 결정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전형 시 학칙에 근거한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에 대해 학부모가 부정청탁하여 학교장과 교감이 정원 외 추가입학 실시

학부모 → 과태료 500만 원
교장 및 교감 → 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

〈학교 입학·성적 등 관련 질의회신 사례〉

+ 2018.09. 법원 결정

Q. 대학졸업 전 취업한 학생이 학교 측에 취업계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A.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 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취업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④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계약하거나,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공기관 재화를 사용하면?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직자들에게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거나(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을 특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9호)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계약 관련 법원 결정〉

+ 2019.11. 법원 결정

공직자가 통신업체를 운영하는 동생을 위해 7회에 걸쳐 각종 통신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정청탁

공직자 → 과태료 900만 원

〈공공기관 재화 사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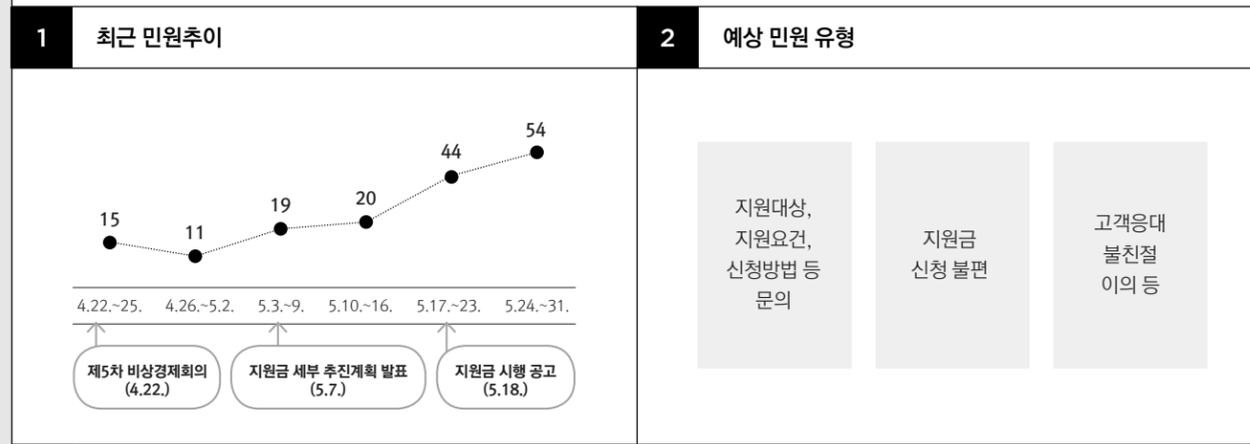
Q. 국립대학교 병원 진료 접수순서 변경을 부탁하거나 기차나 철도 열차표 예약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A.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월의 관심키워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밖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6. 1. ~ 7. 20.)가 개시됨에 따라 동 지원금 관련 각종 문의사항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필요



3 유사사례 : 긴급재난지원금

[민원현황]
처리기관은 행안부(39.9%), 복지부(8.4%), 서울시(6.3%), 경기도, 대구시 등의 순
신청지역은 경기(21.9%), 서울(19.4%), 부산, 인천, 대구 등의 순
신청인은 30대>40대>20대 이하 순, 남성이 62.0%, 여성이 38.0%임

[주요 민원 사례]
산정 기준 문의
부모님 집에 거주하지만 동생부부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인 가구에 해당하나요?

타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문의
'20.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인 신청방법 문의
세대주가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해외에 홀로 체류 중인 경우에, 배우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고객응대 불친절 이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러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였는데, 담당 직원이 "어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와서 오늘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만드나?"라며 기분 나쁘게 응대하였습니다.

부패의 고리에 () 마침표를 () 찍다

부패의 고리

한눈에 읽는 청렴포털 A to Z

『부패의 고리에 마침표를 찍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포털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패의 고리에 마침표를 찍는 청렴포털을 집중 조명합니다.

권익 인포 ② 청렴포털

- 16 p ① 반부패 온라인 지원 시스템 청렴포털
- 18 p ②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
- 20 p ③ 신고 및 이용방법
- 22 p ④ 한눈에 보는 청렴포털 단계별 주요사업

부패 ()
()

부패 () 를 표지하고
() 하이픈 부패

청렴포털 운영 서비스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위원회, 공공기관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고부터 보호·보상신청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업무담당자에게는 반부패 관련 자료 제출부터 신고·보상 처리까지 반부패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부패 온라인 지원 시스템 청렴포털



청렴포털,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나요?

국민 누구나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보호·보상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법·제도 안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② 상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 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④ 보호·보상 신청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⑤ 청렴 자료실

청렴정책일반,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⑥ 결과보기

상담, 신고, 보상 및 보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부패방지 정보시스템은 2003년 구축 이후 단순 유지 관리에 한정된 운영으로 국민의 신고편의성이 낮고,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환류가 중요하나 관련 시스템이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 법·제도 변천〉

연도	주요 내용
'03년	· 부패방지정보시스템 구축 등
'11년	· 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15년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 · 공익신고대상 법률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16년	·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제도 도입 (청탁금지법 시행)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 확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17년	· 공익신고대상 법률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0년	· 공익신고대상 법률이 467개로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0.11.20.시행 예정)

청렴포털,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

단계별 구축사업을 통한 활용도 증대

청렴포털은 2017년에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보호, 보상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하였고, 2019년 공공기관에도 온라인으로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단계 구축 사업에 돌입하여 반부패 정보가 정책에 환류 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청렴포털 구축 현황

추진일정	단계	추진 내용
2017.05.~2017.10.	BPR/ISP사업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18.06.~2019.01.	1단계 사업	위원회 반부패 업무 처리 시스템 구축
2019.06.~2020.02.	2단계 사업	공공기관 반부패 업무 처리 시스템 구축
2020.06.~2021.02.	3단계 사업	반부패 정보 공유·분석 시스템 구축

1단계, 시스템 개편을 통한 (연속성 및 효율성) 확보

1단계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처리절차를 온라인화하는 사업으로 청렴포털에서 기존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보호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을 모르더라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신고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 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사례 DB를 구축하였고, 정보 연계를 통해 신고자가 중복 정보 입력 없이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렴신문고(기존)	청렴포털(개선)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정확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을 몰라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보호 및 신고 관련 각종 변경신청을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청렴포털로도 보호 및 신고 관련 각종 변경신청이 가능

2단계,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 구축

2단계 사업은 각급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반부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자체 신고접수 사건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 신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반부패 정보를 통합 공유할 수 있도록 청렴마당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표준 신고 관리시스템

- ① 체계적·종합적 신고 사건 관리기능
- ② 업무 특성 설정 기능

신고 접수에 대한 알림 기능 설정, 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위반유형 등을 설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렴마당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게시하던 정보를 청렴포털을 통해 통합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하여, 기존 공공기관의 보호·보상 규정, 청렴 활동 등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반부패 정보를 통합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청렴포털(1단계)	청렴포털(2단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부패·공익 신고 가능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도 부패·공익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등록된 청렴·반부패 자료만 청렴포털에서 확인 가능	공공기관에서 등록된 청렴·반부패 자료도 청렴포털에서 확인 가능

3단계,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행 지원

현재 청렴포털 3단계 구축사업이 진행중입니다. 3단계 사업은 1·2단계 사업을 통해 축적된 반부패 정보에 대한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반부패 업무처리 시 지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부패 정보 분석 서비스

<정보 수집·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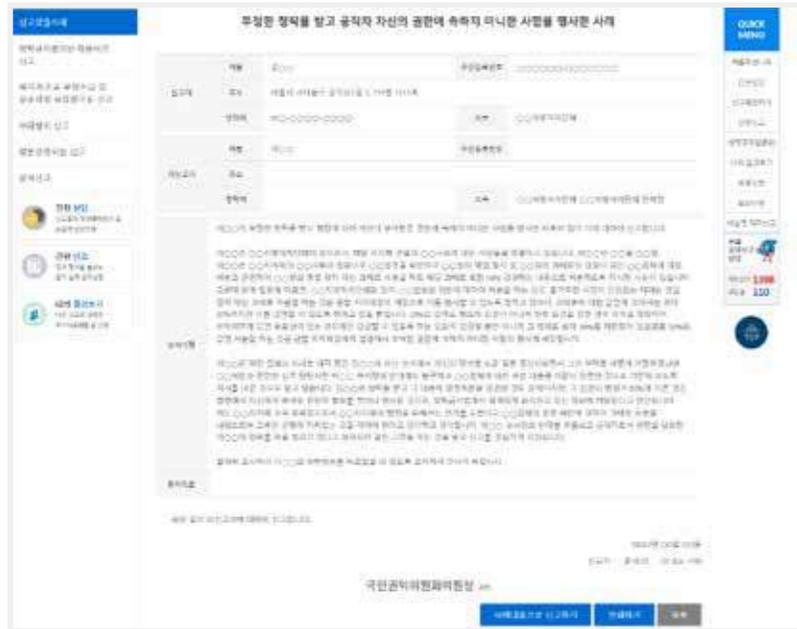
<정보 분석·생산>

분석 가공	반부패 DB다차원분석 (반부패 빅데이터 종합분석, 복합추이, 비교분석, 기관, 지역, 이슈별 등) 반부패 언론 등 이슈 분석
공개	주요 통계 통합공개 (부패분야, 업무 유형, 지역별 등) 분석결과 공유 (관계기관 제공, 보도자료 등) 분석보고서 발간 (주기별·이슈별 등)
정책 환류	부패 취약분야·기관 선제적 예방 정책 제도개선, 정책효과 확인 신고자 등 맞춤형 정보제공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부패·공익신고 등은 청렴포털로

청렴포털, 어떻게 (신고) 하나요?



① 사례를 이용한 신고하기

신고 맞춤사례에서 신고유형, 업무 분야, 업무성격 또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유사한 사례를 검색,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TIP BOX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clean.go.kr)

 청렴포털 바로가기

③ 신고 체험하기를 이용하여 신고하기

신고 체험하기를 이용하여 위반유형, 관련 사업 등을 단계별로 선택하여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간편 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하기

신고 유형을 잘 모를 경우 간편 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내용을 자동 분류하여 추천해주며, 신고유형에 대한 보호·보상 안내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용) 하나요?

청렴포털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인증 후 유형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1. 법·제도 안내	step 2. 본인 확인	step 3. 상담·신고	step 4. 보호, 보상금 신청	step 5. 결과 확인
해당하는 법과 제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해당 부분에 신고를 원하면 양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양식에 맞게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상담·신고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청렴포털 단계별 주요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위원회 반부패 업무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신고인, 공공기관 등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통	반부패 빅데이터 수집·축적을 위해 공공기관에 표준 신고 관리시스템을 구축·보급하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보를 통합 제공	국민·공공기관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에 환류 강화를 위해 반부패 빅데이터의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

목표 시스템



ACRC NEWS

2020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와 정책 이야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 확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 추가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4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공포안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와 병역 의무자의 병역기피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범죄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2020 국민권익위원회 이슈

2020 국민권익위원회 이슈

2 DATE. 05.11



2020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코로나19 여파로 6개월 연기

6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올해 12월로 연기됐다. 국민권익위와 국제투명성기구(TI)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일정 연기에 따른 등록,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과 관련한 변동 내용은 추후 국제반부패회의 한국 공식 누리집(www.iacc2020.kr)에 안내될 예정이다.

i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iacc2020.kr
국제교류담당관 ☎ 044-200-7154

3 DATE. 04.20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고발한 신고자에게 1억 9,7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7명에게 2억 8,057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7백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정수급, 부패행위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보상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i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신고자보상과 ☎ 044-200-7744

4 DATE. 05.15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해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충민원 상담 및 대응 역량의 향상을 위한 협업이 시작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처리 건수 증대, 인용률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양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민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업무협조가 원활해지면서 특별민원 해소와 행정효율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i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고충민원특별조사팀 ☎ 044-200-7325

5 DATE. 05.21



코로나19 피해 직격탄 자동차 제조업체 방문상담 실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현장을 찾아 경영자금 애로 등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대구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경영자금 문제를 청취하고 직접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을 찾아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귀 기울여 듣고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우선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기업고충민원팀 ☎ 044-200-7833

6 DATE. 0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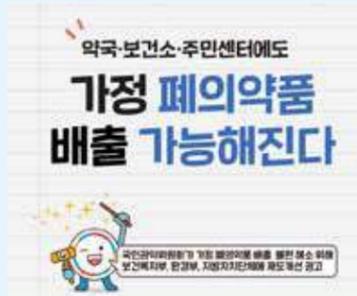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 사망 보훈보상자 인정된다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 행위로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관련한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단시간 업무 부담 증가, 만성적 과중 업무 수행, 초과 근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 행위로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재정경제심판과 ☎ 044-200-7858

7 DATE. 04.21



약국·보건소·행정복지센터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 등 폐의약품 수거지가 확대되고, 폐의약품 수거주기도 단축되는 등 폐의약품 배출로 인한 국민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제각각이었던 폐의약품 수거·처리 방식을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이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사회제도개선과 ☎ 044-200-7253

사연 1

실직한 전투공적자 무공훈장 수여

"어깨에는 장총, 양손에는 풀통과 빗자루를 든 채 적진 전후방 곳곳을 누비며 전단을 살포하고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투항한 적군들이 바로 저의 공로입니다."

● 무슨 일인가요?

아직도 손만 뻗으면 그 시절이 만져질 것 같다는 민원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긴장감 넘치는 전장을 기억해낸다. 민원인은 6·25 전쟁 당시 육군 유격대의 심리작전 계장으로 복무했다. 우리나라 1세대 만화가이기도 한 그는 연백지구, 개풍군 일대 등 전·후방 곳곳을 누비며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 살포, 부착했다. 이렇게 심리전을 벌인 결과 중공군 소대장 등 6명이 투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그의 공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직접 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공훈장 공적심의를 거절된 것이다. 이에 민원인은 심리전과 같이 직접 전투가 아닌 경우에도 공로 인정을 요청했다.

● 어떻게 해결했나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상훈법」 제13조에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직접 참가하거나, 접전 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5등급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직접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쟁 시에는 통신·정보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심리전 역시 전투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거뒀던 다양한 성과는 여러 공적인 자료로 입증되어 객관성에 의심이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의 공적을 재심의를 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도 이런 뜻을 받아들여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 시사점

전투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심리전 등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여 뚜렷한 공적이 확인된다면 무공훈장 수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전시의 뚜렷한 공적'을 전투에 직접 참여한 공적으로만 좁게 해석하지 말고 심리전 등 비전투에 의한 공적도 인정해야 한다. 2011.8.4. 「상훈법」개정을 통해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무공훈장 수여대상을 확대 개선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고충 민원 권익 총만



안녕하세요. <권익 살롱> DJ 권입니다. 저희 코너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활약상을 조명합니다. <권익 살롱> 두 번째 이야기. '실직한 전투공적자 무공훈장 수여'와 '6·25 전몰군경의 국립현충원 이장비용 지원'에 관한 고충민원 사례입니다.



오늘의 사연

● 실직한 전투공적자 무공훈장 수여

-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어도 뚜렷한 공적이 있다면 무공훈장 수여해야...

● 6·25 전몰군경의 국립현충원 이장비용 지원

-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이장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사연 2

6·25 전몰군경의 국립현충원 이장비용 지원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인데,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이라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 무슨 일인가요?

민원인의 형은 24세의 어린 나이로 6·25 전쟁 때 전사했다. 용감히 전투에 임한 그는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당시 매장할 곳이 적당치 않아 면사무소에서 지정해준 타인 사유지에 매장됐다. 그러던 중 묘소가 크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통함을 참고 국립현충원으로 묘를 옮기려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유족이 아닌 형제자매에게는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한 제사 및 운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자비 250만 원을 들여 묘를 이장한 민원인은 '전몰군경에 대한 국가의 처우가 이것밖에 안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어떻게 해결했나요?

안타까운 사연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을 위로하고 차분히 조사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전몰군경 12만1,564명 중 43.4%는 국립묘지가 아닌 개인 토지 등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3만3,927명(27.9%)은 민원인 형의 경우와 같이 직계 비속이 없다. 현실적으로 친족인 형제자매 등이 사망한 이후에는 무연고묘로 전락하여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훈처는 관련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형의 묘를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 이장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처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시사점

그간 국가유공자의 이장비용을 유족이 부담해 왔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제·자매가 이장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가보존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명예를 지킬 국가의 의무를 고려해 볼 때, 형제·자매가 국가유공자의 묘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즉,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와 지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고충상담기획과

정부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지난해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행정 업무와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민원신청인이 여러 부처를 전전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한자리에서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일종의 종합 민원상담 창구다. 덕분에 이제는 국민들이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면서 문의해야 하는 일이 크게 줄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이후 월평균 민원상담 건수는 1,005건에서 2,076건(2020년 5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조금이라도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배치된 메뉴는 다름 아닌 ‘고충민원’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국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직접 방문은 물론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얼마든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헤매기도 한다. 2019년 10월에 개소한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행정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담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의 이해, 의사결정 또는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종합적으로 방향을 안내하는 곳이다. 고충상담기획과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예산, 시설, 인력 등 운영을 총괄하고 국민콜110TF와 방문상담 할 수 있는 민원실(서울, 세종) 운영을 담당한다.



고충상담기획과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와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 부서다.

윤남기 과장을 포함해 8명의 부서원이 함께한다.

지난해까지는 상담안내과라는 명칭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뒷줄-좌측부터) 안해룡, 장재석, 최민자, 양정민, 이창민, 김남영, 나수연, 윤남기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민원 상담 받으세요**

2019년 10월 개소한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있는 종합민원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되었다. 중앙부처와 관련한 민원도 국민들이 여러 곳을 전전하지 않고 한 곳만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는 통합민원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 2018년부터 정부혁신사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협업하며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하면서 만든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 곳에서 한 번에’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민원 상담을 받으려고 여러 곳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해결책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영 사무관이 정부합동민원센터의 기능을 간단히 소개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와 함께 민원 상담 안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온라인 상담이다. 정부합동민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민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전에는 서울과 세종 두 곳에 민원상담실이 있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아무래도 상담에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인터넷 활용을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해보니 온라인 상담 비율이 무척 높아요.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곳에서 한 번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한 곳에서 민원을 상담할 방안도 필요했다. 그래서 각 부처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현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파견을 나온 기관은 총 10개. 현재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다.

방문상담 현장에서는 민원신청인들에게 기초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유로 찾아오는 민원상담인들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람을 응대하는 노하우와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더불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상담위원들도 함께 상담 업무를

를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상담관들의 감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상담기획과에서는 상담관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누군가는 중간에서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적으로 그러한 기능이 있고, 실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어떤 일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은 해결할 통로를 몰라서 권리를 잃어버리는 일도 많아요.” 국민이 몰라서 놓치는 권리가 없도록 돕는 일. 민원상담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상담관들과 함께 최적의 민원상담 환경을 만들어가는 고충상담기획과의 열정을 응원한다.

**Mini
Interview**

이창민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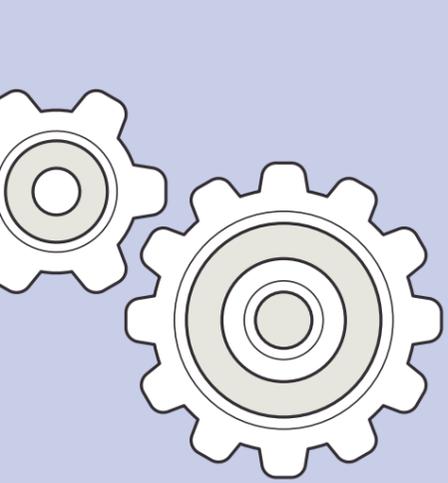
올해 1월 6일에 발령받아 통계 작성과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통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수치를 분석하면 어떤 점이 좋았고 부족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직원들은 민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고충상담기획과에 와서 현재 민사법무 관련한 고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기획과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윤남기 과장님의 부드러운 리더십 덕분에 차근차근 업무를 익혀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충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국민들의 답답함을 곁에서 체감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이곳에서라도 호소하고 싶은 바람이 절로 느껴져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배워나가며 일하겠습니다.

나수연
주무관



<p>국민권익위원회의 SNS 채널</p>	<p>권익비전▶ 권익비전</p>	<p>f 페이스북</p>	<p>Instagram 인스타그램</p>	<p>t 트위터</p>	<p>Website 홈페이지</p>
----------------------------	-----------------------	-------------------	----------------------------	------------------	-------------------------



행정심판 제도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익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무료로 진행되고,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까지 가지고 있어, 국민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서 송달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편리하게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장점

- ① 모든 행정심판 절차를 PC·모바일을 통해 진행
 - ② 방문·우편에 비해 신속·편리한 심판 청구 가능
 - ③ 심판 진행상황 및 결과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 ※ 등기 송달/수령에 따른 불편함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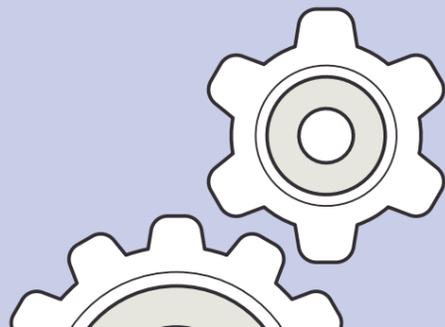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

← 온라인 행정심판 바로가기

알면 힘이 되는 행정심판

억울하게 행정청에서 위법·부당 처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행정심판 제도’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국선대리인, 조정, 간접강제 제도를 포괄하는 국민 권익구제 제도인데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처분 행정청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한 ‘행정심판 제도’를 소개합니다.



행정심판 신설제도

+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해당자로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지원요건 해당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선정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신청서 및 소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활동	지정된 국선대리인이 신청인(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신하여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시까지 대리활동을 수행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조정 제도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에서 동의를 받아 조정을 진행합니다.

- 조정 대상**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변경
 - 징계처분의 감경
 - 행정상 강제집행의 연기
 -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원래 신청된 내용보다 축소된 처분으로 변경 등

조정 효력 성립된 조정은 행정심판 재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처분청은 조정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 부담

+ 간접강제 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도 처분청이 미이행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간접강제 신청에 따라 처분의 이행 시까지 처분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이나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우리 아이, 부족함 없이 자라길..

출산·육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다!

웹툰 리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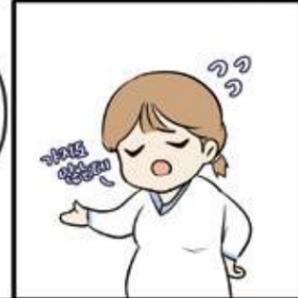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x 2020 청백리포터



웹툰 리포터



아쉽...
둘째 출산 때문에
유치원을 못갔더니
출석인정이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럼 유치원비를 내야되거든요.



한숨...
아이 돌보기에
곤란한 경우가 더러 있네요...
이럴 때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으면
좋겠어요.

!!
산모님!
그럴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출산지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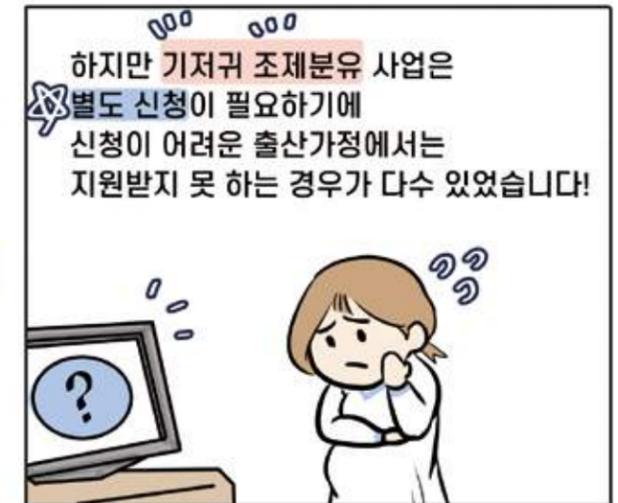




웹툰 리porter



저소득층 출산서비스 지원 개선



출산 관련 불편 제도개선 권고

출산 대학생 공결 인정규정 제도개선

출산 가정 유치원 학비 지급

출산을 이유로 유치원에 미종식한 경우, 종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제도개선 권고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유치원을 결석한 경우에도 종석으로 인정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0월까지 관련 규정을 교육부에 권고함.

출산 대학생 공결 인정규정 마련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 공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학점 불이익의 우려가 있음.

제도개선 권고

재학 중 출산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2020년 10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공립 대학교에 권고하고, 사립대학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문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사연(수기)분야 대상 별이 빛나는 밤

아버지가 당부하신 '청렴함' 그리고 그것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바람. 내 작은 의지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명이다. 그래도 흔들리면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 중에 아버지가 남긴 청렴이란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분야

카지노가 있는 정선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둡고 음습하다. 그렇기에 그곳에 뜨는 별은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카드 소리에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이 뒤섞여 흐른다. 강원도 정선에는 황금빛으로 온 벽을 치장한 거대한 카지노가 있다. 24시간, 365일 언제나 북새통을 이루는데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각자의 선택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된다. 능숙한 카지노 딜러의 하얀 손은, 타락한 겐블러의 마지막 칩을 사정없이 집어 간다. 패배를 인정한 겐블러는 모든 걸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다음날이면 상처 입은 허물을 흉하게 드러낸 채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곳은 탐욕의 한탕주의와 절망의 낭떠러지가 조우하는 카지노다. 나는 딜러의 뒤편에 서서 게임을 주시하고 있다. 손님의 동태와 게임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흐름이 바뀔 때마다 베팅금액을 웹패드에 입력한다. 내가 입력한 베팅금액은 게임 시간에 비례해 콤프(카지노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손님은 적립된 콤프로 호텔에 숙박하며 음식을 제공받는다. 나는 정선 카지노의 플로어 퍼슨(카지노 관리자)이다.

그날도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전화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에게 여러 통의 전화가 와있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지나고 있었다. 김포에 계신 아버지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상하다’

통화 버튼을 누르니, 전화벨이 한 번 채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으셨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너 일하는 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 2박 3일 정도로.”

아버지는 무뚝뚝한 말투로 나를 보러온다고 하신다. 처음이었다.

성품이 강직하고 고지식한 아버지는 너무 정직하게 과일 장사를 하신 탓에 이문을 크게 남기지 못하셨다. 그렇기에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터로 향했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시곤 했다. 휴일에는 피곤함에 젖어 온종일 주무셨다. 도저히 가게를 비울 형편이 아니었고, 한평생 여행을 떠나지도 않으셨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날 보러온다고 하신다.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저 쉬기 전날에 내려오세요.”

“그런데... 숙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모처럼의 방문인데 아버지를 기숙사로 모실 수는 없었다.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교만함이 꿈틀거린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관리자잖아요. 오셔서 고객 카드만 만들면 제가 호텔이랑 뷔페 먹을 수 있는 콤프를 적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게임 할 줄 모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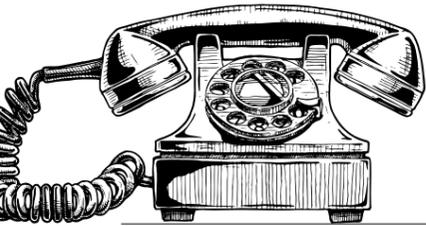
“에이! 아버지, 게임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는 너무 복잡해서, 그냥 콤프를 적립해도 아무도 몰라요. 제 동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이라 하루 숙박료가 15만 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물었다.





“그러면... 이틀 자는데 30만 원이 넘는단 말이지?”
 “네!”
 “흠...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돈을 부칠 테니 방을 잡아줄 수 있겠니?”
 ‘정말 이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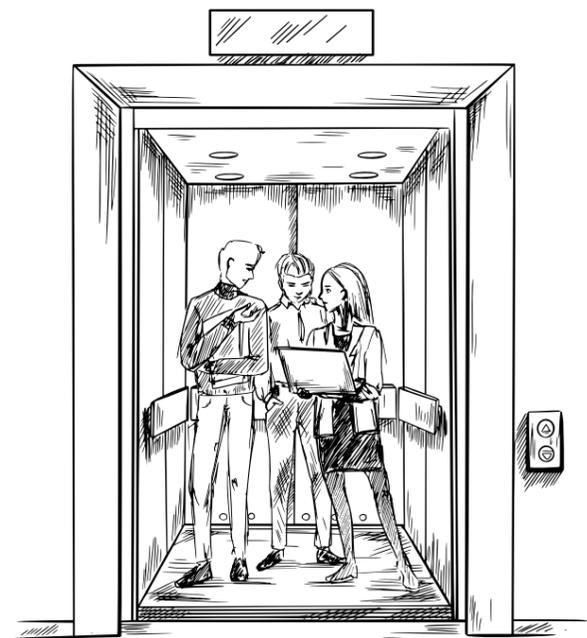
내가 아는 아버지는 절대 그런 큰돈을 주고 호텔에 투숙할 분이 아니다. 그리고 돈도 아깝다. 나는 근무 중에 얼마든지 콤프를 적립할 수 있고, 그 마일리지로 호텔 방을 잡으면 된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 선배, 동료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콤프 입력은 나의 업무이고 권한이다. 아버지는 당부하신다.
 “아들아! 나는 직장생활은 잘 모르지만 영 석연치가 않구나. 회사에서 그런 큰 권한을 준다는 건, 그만큼 너를 정직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졌다. 막상 부정하게 콤프를 적립할 생각을 하니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호텔에 연락을 해보았다. 직원 할인을 받으니 생각보다 싼 가격에 호텔을 예약할 수 있었다. 호텔 직원과 객실 사용에 필요한 얘기를 나누던 중, 로비에서 회사 선배와 그의 가족들이 나온다. 선배는 나를 불러 은밀히 말한다. “호텔을 왜 사비로 예약하니? 그냥 고객 카드 하나 만들어서 전산 입력해! 아무도 모르고 신경도 안 써!”라는 말을 조언처럼 남기고 가족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동료와 식사를 하며 호텔을 예약하고 왔다고 말했다. 동료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융통성이 없다고 비웃었다. 정말 다들 콤프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오랜만에 본 아버지의 모습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병색이 짙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한참을 별말 없이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두운 정선의 밤하늘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풀벌레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흐른다. 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이익에 부정을 저질러 화를 당하지만, 욕심이 큰 사람은 ‘청렴함’이 몸에 배어 성공을 이룬다. 나는 우리 아들이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란다.” 콤프로 호텔 방을 잡으려 했던 나를 꾸짖는 질책이었다.
 아버지는 고개 숙인 나를 보듬으며, ‘별’이 되어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다. 무뎠던 아버지의 애정 어린 마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왔다.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별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정선의 밤하늘은 유난히 밝고 수려하다. 답답한 마음이 정화되고 청명해진다. 마음속의 탐욕도, 걱정도 사라진다. 그렇게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정선에서의 깊은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버지는 김포로 돌아가셨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어머니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시곗바늘은 새벽을 지나고 있었다. 불길함이 엄습한다. 전화기 속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못 하시고 단지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토해내실 뿐이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암이었다. 죽음을 직감한 아버지는 가족에게 병을 숨기고 내가 일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러오셨다. 그리고 이내 집에서 탈이 나 병원으로 이송되고 말았던 것이다.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본인을 장사치라 칭한 아버지는 공기업 직원인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고, 다 큰 아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늘 노심초사하셨다.
 아버지는 야윈 몸을 병실 침대에 의지한 채 힘겹게 입을 여신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지 마라. 결국 나중에 더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 항상 ‘청렴’하게 살기를 바란다.”
 평생을 정직하게 장사하신 아버지의 삶, 철학이 담긴 마지막 당부였다. 그것은 나에게 유언으로 와닿았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아버지는 내 곁을 영영 떠나가셨다. 장례식에 찾아온 동료는 조문을 하던 중 회사가 발각 뒤집혔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새로 부임한 감사님이 부정 콤프를 적립한 직원들을 색출하여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었다. 회사 창립 이래 최대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명단에는 수많은 선배와 동료들의 이름이 올랐

다. 호텔에서 만난 선배와 기숙사에서 나에게 융통성이 없다고 비웃던 동료의 이름도 있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성행하던 부정 콤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만나러 정선에 오신 그날 호텔 방 하나에 양심을 저버렸더라면 상주 신분인 나 역시도 그 징계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불효이고 수치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우려하고 늘 당부하셨던 부분이다. 생각만으로도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처박힌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강한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청렴하게 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심장을 관통하는 뜨거운 성찰이었다. 그날은 내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을 택한 이는, ‘청렴한 세상’을 꿈꾸는 집행자의 하얀 손에 의해, 모든 걸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 또한 깊은 상처의 허물을 흉하게 드러낸 채 초라하게 남겨진다. 꼭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청렴을 지키자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존감을 채워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청렴해야 한다.
 간혹 내가 처한 입장 또는 주변인과의 관계에 따라, 부정과 마주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느낄 때도 있다. 혹은 나 스스로가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럴 때면 아버지를 떠올려 본다.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을 택한 이는, ‘청렴한 세상’을 꿈꾸는 집행자의 하얀 손에 의해, 모든 걸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 또한 깊은 상처의 허물을 흉하게 드러낸 채 초라하게 남겨진다.
꼭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청렴을 지키자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존감을 채워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청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건전한 토론과 협업을 통해 더 좋은 정책으로 구현해나가는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www.idea.epeople.go.kr)이다. 여름 호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 아이디어인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가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를 소개한다.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hyun02'님의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현황]

최근 배달 식품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아이스팩이 함
 께 배달된다. 하지만 아이스팩을 처리하는 과
 정에서 환경오염 및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문제 제기]

아이스팩은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일상
 생활에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
 민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다. 또한 정확
 한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의 탄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국민생각함에 올라왔습니다.
 <2020. 04. 01.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hyun02'님의 생각>

“각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보다 편하게
 아이스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아이스팩을 분류, 선별하여 이것이 필요한 전통시장 등에 배달해 준다면
 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서 아이스팩 수거
 를 위한 작은 수거함을 지원한다면, 주민과 아이스팩이 필요한 사람들 그
 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완성]

환경부의 답변

▶ 현재는 경제성 부족으로 수거 이후 세척·운송·재사용을 위한 주체가 없으나,
 향후 지자체별 수거 재사용 계획을 파악한 후 대상 지자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존

- 홈쇼핑 업체 등과 아이스팩 회수 후, 전통시장 공급 등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및 시범 사업 실시(19.12)
- 아이스팩의 유통현황 파악 및 적정처리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20.01)

결과

-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적으로 부하가 큰 종류는
고흡수성폴리머(SAP)를 충전재로 사용하는 아이스팩임
- 아이스팩 재사용 시 신규 아이스팩의 매입단가보다
역회수 방식의 재사용 비용(회수, 분류, 세척, 운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검토

- SAP 아이스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통한 사용억제
- 환경 부하가 적은 충전재를 사용한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유도
-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SAP 아이스팩의 규격화 가이드라인을 수립

향후 계획

-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사요청
- 부담금 편입을 위한 관련법(자원재활용법) 개정
- 아이스팩 규격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파
- 지자체별 SAP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지원



환경부에서는 국민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국민생
 각함으로 회신했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자는 'hyun02'님
 의 아이디어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실현될 예정입니다.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와 국민생각함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춘(부산광역시 북구) “건강관련 기사를 보고 싶어요.”

슬기로운 여름 생활



+ 식중독이란?

살아있는 세균 또는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를 함유한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등의 급성 위장염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감염 후 48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지만 혈변, 발열, 탈수 등 고통이 심하거나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 식중독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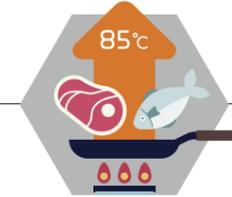
여름에는 덥고 습한 날씨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계절이다. 특히 고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 이에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도 편집장'에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나도 편집장'은 독자 엽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이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사는 곽동춘님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식중독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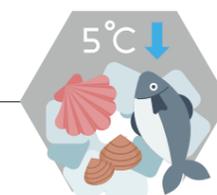
자주 손 씻기

손 씻기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조리 전, 식사 전 등 틈틈이 손을 세척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한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 익혀 먹기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익도록 충분히 가열해 조리한다. 그리고 장염비브리오균이 많은 생선과 어패류의 경우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세척한 다음, 85°C 이상의 끓는 물에 1분 이상 가열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이나 물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음식물 보관하기

식중독균은 실온 상태일 때 급속히 증식한다. 때문에 음식은 냉장 또는 냉동상태에 보관해야 한다. 식재료는 깨끗이 씻어서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고에 넣고, 조리된 음식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또한 유통기한을 확인해 지나간 것은 바로 버리는 것이 좋다.



조리 기구 관리하기

칼, 도마 등은 육류와 어패류를 따로 구분하여 사용해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한다. 조리 기구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닦은 후 열탕 처리하며, 행주와 수세미도 삶은 뒤 햇볕에 말려준다. 또한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나 얼음 보관함은 수시로 살균 소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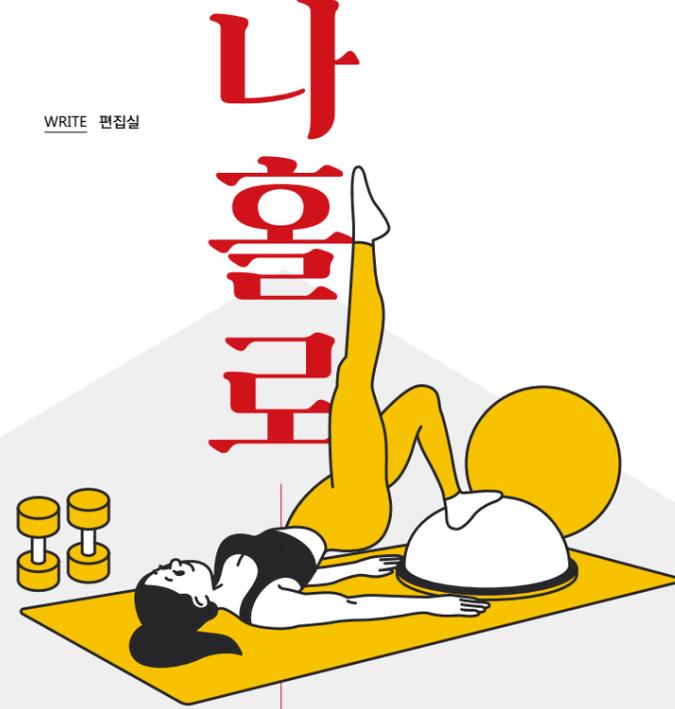
여름철 유독 식중독이 잘 걸리는 이유?

- +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고온다습한 환경(10~40°C)
- + 세균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모기, 파리 등의 활발한 활동

주의해야 할 음식과 식중독균

주의해야 할 음식	대표 식중독균	특징
생선회	장염비브리오균	겨울철 해수 바닥에 있다가 여름철 위로 떠올라 해산물 오염
조개	장염비브리오균	
가공식품 (햄, 치즈, 소시지) 우유	패류 독소	마비, 설사 유발
	보툴리누스균	신경장애를 유발
	병원성대장균	냉장, 냉동 온도에서도 존재

나홀로 집에.



홈 트레이닝

집에서 즐기는 홈 트레이닝

복근 강화를 도울 3가지 연결 동작

첫 번째 동작

- 1 팔꿈치는 90도 각도를 유지하며 바닥을 짚어 상체를 지탱한다.
- 2 복부는 15도 정도 세워 긴장감을 유지한다.
- 3 다리는 쭉 뻗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무릎을 번갈아가며 가슴 쪽으로 끌어 올린다.
- 4 이때 아래로 뻗은 다리의 발뒤꿈치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 동작

- 1 첫 번째 동작과 같은 준비 자세를 유지한다.
- 2 복근에 긴장감을 유지한 채 양쪽 다리를 동시에 세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 올린다.
- 3 다리를 뻗을 때 각도를 바닥과 가까이할수록 하복부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며 운동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세 번째 동작

- 1 첫 번째 동작과 같은 준비 자세를 유지한다.
- 2 양쪽 다리를 나란히 펴고, 바닥에 닿지 않게 긴장감을 유지한다.
- 3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끝이 반원을 그리듯 천천히 양쪽 다리를 이동해준다.
- 4 하복부에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가는 동작으로, 위의 동작보다 운동 효과가 크다.

[출처] 김사과의 블로그(<http://blog.naver.com/dmswude>)

전신 근력을 강화할 3가지 운동



컬 시 런지 & 점프 스쿼트

- 1 다리를 어깨너비 정도 벌린다.
- 2 한쪽 발을 나머지 발 대각선 뒤로 이동시킨다.
- 3 그 상태에서 상체를 곧바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양쪽 무릎을 90도 가까이 내려준다.
- 4 다시 1번의 자세로 돌아온 뒤 스쿼트 자세를 취한다.
- 5 스쿼트 자세를 취한 뒤 한 차례 점프를 한 후 스쿼트 동작으로 마무리한다.
- 6 반대 방향으로 위의 동작을 반복한다.

스케이터&싱글 레그 데드리프트

- 1 한쪽 다리를 지면에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스케이터 자세를 취한다.
- 2 달리기하듯 팔을 앞뒤로 교차함과 동시에 한쪽 무릎을 빠르게 가슴 쪽으로 끌어 올린다.
- 3 2초의 시간차를 두고 들어 올렸던 다리를 반대로 바닥에 지탱한 채 위의 동작을 반복한다.

러시안 트위스트

- 1 엉덩이를 지면에 위치시키고, 양발은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를 유지한다.
- 2 머리, 등, 엉덩이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게 정렬한 뒤 상체를 양쪽으로 회전시킨다.
- 3 이때 회전하는 방향으로 시선도 같이 움직여야 과도한 허리 근력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출처] 부산PT 모먼트핏의 블로그(blog.naver.com/zestfitkorea)





한여름에

맞설 우리의 옷장*

여름철

건강한 옷차림

가만히 있거나 해도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무더운 여름이 돌아왔다.

매번 퇴약별 아래에 지쳐있기도, 무자비한 에어컨 바람에만 몸을 맡길 수도 없다. 온열병과 냉방병 사이에서 쾌적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한 옷차림은 무엇일까?



퇴약별 아래에서는 가려주세요

30℃가 훌쩍 넘어가는 한여름의 기온. 한낮의 퇴약별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초래할 만큼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짧은 옷에 저절로 손을 뻗게 되지만, 맨살을 장시간 햇볕에 노출할 시 일사병과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 오랫동안 야외활동을 해야 할 땐 얇고 시원한 소재의 긴 옷을 입는 것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충분한 수분 섭취 또한 필수!



에어컨 아래에서는 챙겨주세요

아스팔트의 아지랑이를 피해 달아나는 곳마다 설치된 반가운 얼굴, 에어컨. 추위질 정도로 내뿜는 과도한 냉풍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감기와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냉방된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5℃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은 큰 무리를 느끼게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챙겨야 할 건 여벌의 셔츠 혹은 카디건이다. 이것이야말로 한여름의 추위에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26℃)도 지킨다면 금상첨화라는 것을 잊지 말자.



끈적일 때는 이걸 선택해주세요

높은 온도만큼이나 높은 습도로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여름. 몸에 들러붙는 옷은 더 큰 불편함을 선사한다. 이럴 때일수록 의류 소재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법이다. 깔깔한 감촉과 우수한 통기성·흡수성을 가진 '마' 소재는 여름철 가장 각광받는 소재 중 하나. '마'의 종류에 따라 삼베, 모시, 리넨(Linen) 등의 섬유 소재가 있으며, 이들 모두 여름철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쾌적한 옷차림을 입고 싶다면, 이젠 '마'를 선택해보자.



마직물 의류 세탁법

마직물 의류는 혼방된 소재에 따라 손빨래 또는 드라이클리닝으로 나뉜다. 마와 폴리에스테르가 혼방됐을 때는 드라이클리닝을, 마와 면이 혼방됐을 때는 손빨래가 적합하다. 얇은 소재일수록 수축을 감안해야하는데, 이때 30℃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손빨래한 후, 통풍 좋은 곳에 건조하면 어느 정도 수축을 방지하며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다. 특히, 마직물을 섬유유연제로 헹구면 직물에 함유된 식물줄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섬유 가루 '잔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은 금물이다.



지난 2020년 <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차수정 (광주시 광산구)

<국민생각함>을 통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사례'를 잘 보았습니다.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져다주거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국민생각함을 통해 현장의 반응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큰 의의가 느껴지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험적인 사례로 한번 활용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국민생각함의 우수사례 많이 소개해 주세요.

윤지원 (전남 순천시)

<국민권익>은 머릿속에 여운이 많이 남는 책입니다. 특히 이번호 '불청객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외울 정도로 읽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은 크게 복사하여 집 현관 유리창에 크게 붙여 놓았네요. 물과 비누로 꼼꼼히 손씻기, 기침 할 때는 옷과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등 코로나 19를 이기기 위한 예방 수칙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의 가슴까지 파고드는 가르침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최연건 (충남 서산시)

공공재정환수법의 취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와 포상을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배신자로 배척당하는 사회 분위기를 쇠신하고 신고자는 애국자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준임 (경기도 의정부시)

<청백리포터> 칼럼의 '열차지연도착 배상금'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열차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했을 열차지연 도착 시 적절한 배상범위와 배상받는 방법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더 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들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함께해주는 수호천사,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어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박태규 (인천시 연수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번째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며, 신설된 '청렴 랩' 부문은 독특한 주제와 전달방식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세상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을 알리는 마중물인 것 같아 든든합니다.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대상으로 선정된 '매화'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 충절을 상징하는 매화처럼 바르고 깨끗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서 대상 작품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이란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 신고 및 이와 관련된 보호·보상신청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호 정답	국제반부패회의	
정답자	이혜리(경기도 군포시) 강필선(부산시 사상구) 이태림(대전시 유성구)	김혜선(광주시 서구) 박지원(대구시 수성구)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응모분야 수기, 시, 영상, 웹툰 카드뉴스, 노래 총 5개 분야
 심사방법 예심 및 본심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수상작 선정
 시상내역 총 50편, 총 상금 5,160만원

구분	일정	내용
수기	6~9월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및 일상과 응모주제 관련 에세이 (A4, 4페이지 이내)
시	6~9월	응모주제 관련 창작 시 (A4, 1페이지 이내)
웹툰카드뉴스	6~9월	응모주제 관련 창작 웹툰 (25컷 이내) 카드뉴스 (10컷 이내)
영상	7~10월	응모주제 관련 창작 영상물 (10분 내외)
노래	7~10월	응모주제 관련 노래 동영상 (2분 내외)

수기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10편, 480만원
시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10편, 480만원
웹툰카드뉴스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10편, 900만원
영상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10편, 1,950만원
노래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10편, 1,350만원